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네티브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아시안컵 축구 D조 한국 VS 사우디 오늘 밤 9시35분

“박지성 잘하고 있다 무릎부상 안타까워”

히딩크 감독 방한 인터뷰

‘월드컵 4강 청부사’ 거스 히딩크 전 한국축구 대표팀 감독이 ‘애제자’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클럽 가운데 하나인 팀에서 좋은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딩크는 “(박지성이 떠난다고 하자)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다”며 농담을 던진 뒤 “당시에는 내가 이기적이었다. 박지성은 잘하고 있다. 다만 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히딩크의 이번 방한 목적은 2년 전 설립한 ‘히딩크 재단’이 충북 충주 삼성생명원에 기증한 시각 장애인 전용축구장 준공식(11일 오전)에 참석하기 위한 것.

작년 독일월드컵 직전인 5월에 한국을 찾은 이후 1년 2개월 만의 방한이다. 변함없이 여자 친구인 엘리자베스와 동행한 히딩크 감독은 “오랜만에 왔는데 카메라가 많이 와 놀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 알고보는 재미

첫 경기 무승 징크스 벗나

‘지긋지긋한 첫 경기 징크스에서 탈출하라’

47년 만에 아시안컵축구 정상 탈환을 노리는 태극전사들이 11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본선 조별리그 D조 첫 대결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아시안컵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징크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악연’은 이제 안녕!

한국은 그동안 아시안컵 무대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징크스를 양산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안

컵 무대에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3회 연속 8강에서 만나 1승2패로 밀리면서 생긴 ‘이란 8강 징크스’.

하지만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상하리만큼 안 풀리는 아시안컵 첫 경기 무승 악연이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11번 본선에 올라 무려 8차례나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1996년 11회 대회부터 내리 3회 연속 무승부를 거뒀고, 이보다 앞서 1964년 대회부터 1984년까지 4회 연속 무승(3무1패) 기록을 세웠다.

이동국 최다골 기록 깨질까

▲새로운 아시안컵의 사나이가 태어날까.

이동국(미들즈브러)은 아시안컵 무대에서 무려 10골을 터트리며 역대 대표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아시안컵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원조’ 아시안컵 사나이는 최순호 현 울산현대 미포조선 감독이다. 최 감독은 1980년 제7회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만 헤트트릭을 포함해 7골을 쏘아 올리면서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이동국이 2000년 대회에서 헤트트릭을 합쳐 6골을 뽑아내면서 근접했지만 최 감독의 아시안컵 단일 대회 최다골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염기훈(전북), 이근호(대구) 등 순조롭게 올라가는 신진 선수들이 대신배들의 기록을 깨고 아시안컵을 발판으로 빅스타 대열에 들어설지도 관심거리다.

더불어 마지막 아시안컵 무대가 될 이동국의 고별 골잔치 역시 지켜볼 만 한 구경거리다.

질퍽한 잔디 어느팀에 유리?

▲폭폭 빠지는 잔디는 누구의 편?

9일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오후훈련을 마친 대표팀 코사 골키퍼 코치는 취재진들에게 물기를 가득 머금은 질퍽한 잔디를 가리키며 “습을 할 때마다 축구의 스타드가 바빠 힘있게 차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식(성남) 역시 “한국 잔디보다 많이 패인다. 사우디전이 저녁경기라서 이슬이 맺히면 더 미끄러울 것 같다”며 우려했지만 “이란 잔디 상황은 딱딱한 땅에서 경기를 해온 사우디보다 한국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체력싸움. 질퍽한 잔디를 뛰다보면 체력소모가 많아 경기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어느 팀이 선수들이 평소에 체력관리를 잘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조재진 원톱 “공중전 압도”

염기훈·최성국 ‘좌우 날개’

한국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에 당했던 ‘무승 징크스’를 깨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킴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오후 9시35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2위 사우디와 2007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 D조 첫 경기를 펼친다.

베어백 감독은 경기에 앞서 10

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치러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컵을 치를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우승컵을 되찾아 올 때가 됐다”며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시안컵 준비상황에 대해 베어백 감독은 “지난달부터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르면서 최선의 준비를 다했다”며 “이제 준비한 모든 것을 실전에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칭스태프와 선수 모두 지난 47년 간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때 꼭 우승컵을 가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베어백 감독은 이번 사우디전에서 ‘4-2-3-1 전술’을 기본으로, 이동국(미들즈브러) 또는 조재진(시미즈)을 원톱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대표팀에서 아시안컵 최다득점(10골)에 빛나는 이동국(미들즈브러)과 우즈베키스탄 평가전에서 두 골을 쏘아 올린 조재진(시미즈) 모두 날다른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어 손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중볼 다름에서 우위를 가진 조재진을 먼저 내보낸 뒤 이동국에게 승부에 쐬기를 박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좌우 공격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염기훈(전북)-최성국(울산)이 먼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기훈이 있는 이천수(울산)가 교체투입될 전망이다.

공격형 미드필더 역시 고민스런 부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상을 당한 김정우(나고야)가 아직 100% 컨디션을 회복하지 않아 김두현(성남)이 선발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천수의 ‘깜짝’ 포지션 변경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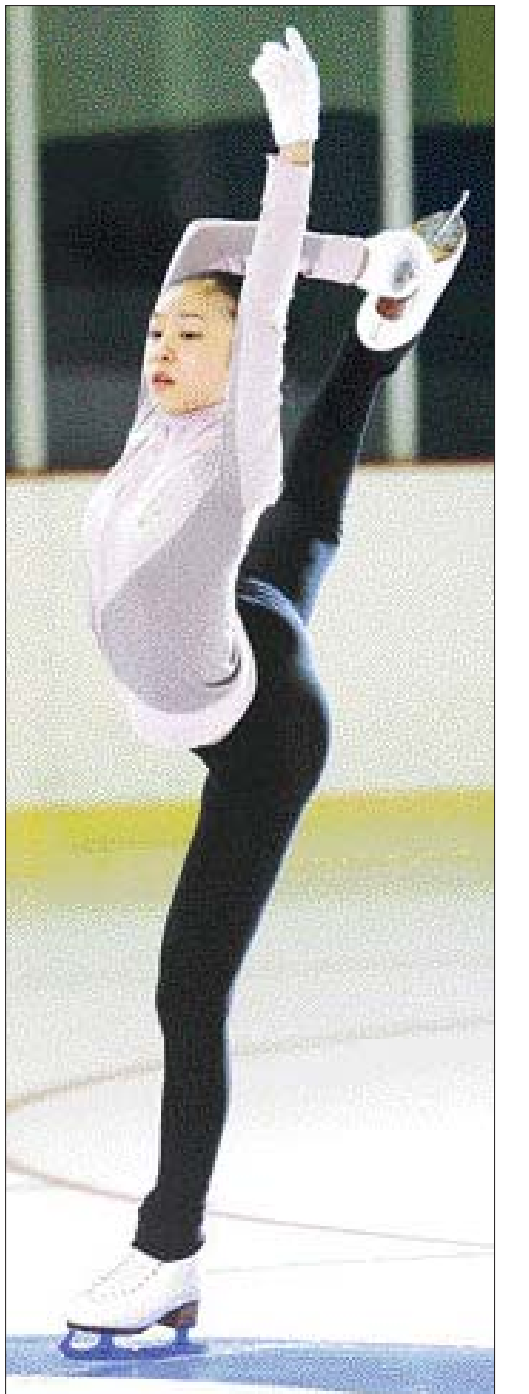
수비라인의 조직력을 강조하고 있는 베어백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환상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김상식-손대호(이상 성남)에게 “더블 볼란테”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또 포백(4-back)의 좌우 윙백은 김동진(제니트)-송종국(수원)이 맡고 중앙 수비에는 키력이 좋은 김진규(전남)와 대인방어에 뛰어난 김치곤(서울)이 포진할 전망이다. 골키퍼는 주장 완장 찬 이문재(수원)가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재진〉



김연아 “공익광고 찍어요”

한국의 피겨 요정 김연아가 10일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에서 국정홍보처 공익광고를 촬영하며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김연아는 10일 KB국민은행으로부터 1년간 훈련비 3억원을 지원받는 조인식을 가졌다.

베어백호 취약점은 역습대처능력 부족

■ 한국체대 측정평가실 분석

47년 만에 아시안컵축구 정상에 도전하는 베어백호의 취약점은 역습대처 능력 부재인 것으로 최근 A매치 분석 결과 나타났다.

한국체대 측정평가실이 3월24일 우루과이전(0-2 패), 6월2일 네덜란드전(0-2 패), 6월29일 이라크전(3-0 승), 7월5일 우즈베키스탄전(2-1 승) 등 네 경기의 패스연결망 시스템으로 분석해본 결과 베어백호는 페널티키를 제외한 4실점 중 2점을 공격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역습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점이었다는 얘기다.

또 평균 2.6회의 적은 패스 연결에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 빠른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베어백호는 공격이 특정한 세 명의 선수에게 치중된 비율이 50%를 넘는 경기에서는 모두 패한 반면 공격 의존도가 높고 무분산된 경기에선 모두 승리했다.

볼 점유율과 공격 점유율은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어백호의 A매치에서는 진 경기나 이긴 경기나 볼 점유율이 57%로 같았고 공격 점유율은 이긴 경기 57%, 진 경기 62%로 오히려 패한 경기에서 더 높았다.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캐나다 6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2007 대회에서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개막전에서 4회 우승국 브라질이 폴란드에 일격(0-1 패)을 당하며 이번으로 시작한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대륙별 희비가 극명하게 대비됐고, 예비스타들은 서서히 이름값을 하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에 불을 지웠다.

▲아시아 몰락-아프리카 약진

4개국씩 참가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아시아는 F조의 일본만 2승1무, 조 1위로 16강에 올랐을 뿐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 팀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일찌감치 귀국길에 올랐다.

D조 한국이 2무1패, B조 요르단이 1무2패로 각각 조 최하위에 머물렀고 지난해 U-19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국인 북한은 2무1패로 E조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부터 3회 연속 16강에 오르며 아시아 청소년 축구의 자존심을 지켰다.

반면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모두 웃었다.

■ U-20 월드컵축구 16강 확정

아시아는 ‘지고’ 아프리카 ‘뜨다’

강호 나이지리아(2승1무·F조 2위)를 비롯해 잠비아(1승1무1패·B조 2위), 감비아(2승1패·C조 2위), 콩고(1승1무1패·A조 3위) 등 북반구까지 나란히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감비아는 특히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0명이 싸우고도 포르투갈을 2-1로 꺾는 돌풍을 일으켰다. 브라질이 조 3위, 와일드카드도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체면

을 구했지만 남미도 4개국 모두 16강에 올랐고, 유럽은 6개 참가국 중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5개국이 1차 관문을 넘어섰다.

▲특정왕 경쟁 본격 접화

조별리그를 마친 현재 득점 1위는 4골을 기록한 스페인의 미드필더 아드리안 로페스다. 로페스는 요르단과 3차전(4-2 승)에서 경기 시작 38분 만에 혼자 세 골을 몰아넣으며 미국의 축구 신동 프레디 아우에 이어 대회 2호 헤트트릭을 작성, 득점 선두로 나섰다.

대회 최다(5호) 우승국 아르헨티나의 기대주 세르히오 쿠야게로 등 네 명이 3골로 로페스를 추격하고 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24게임 중 최다골(9득점)을 터트린 미국은 아두를 비롯한 대니 제랄라, 조스머 엘티도어 등 세 명이 각각 3골씩을 넣었다. 한국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난 두 골을 넣은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알레산드로 파투가 16강 토너먼트부터 다시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역시 2골을 넣은 포르투갈 축구의 새 아이본 브루노가 마는 감비아전에서 부상으로 사실상 이번 대회를 마감, 어렵게 눈물을 떨어뜨렸다.